opusdei.org

11월 22일, 오푸스데 이 신자 18명이 마카 오 교구님 이분상 주 교로부터 부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.

새 부제들은 12개국에서 왔습 니다.

2025-11-16

11월 22일 토요일, 오푸스 데이 소속 18명의 신학생들이 마카오 교구장 리 분상(Stephen Lee Bun-Sang) 주교로 부터 부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. 서품 식은 로마 성 유진 대성당에서 오전 10시 30분에 거행됩니다.

4명의 부제는 나이지리아 출신이며, 다른 4명은 스페인 출신, 나머지 10 명은 아르헨티나, 브라질, 카메룬, 칠 레, 콜롬비아, 필리핀, 과테말라, 이탈 리아, 케냐, 베네수엘라 출신이다.

나이지리아 출신 앤서니 모마(34)는 화학 공부를 마친 후 산업기술연구소 (IIT)에서 프로그램 조정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. 이 연구소는 중등 교육을 마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그는 개발 중인 농촌 지역 사회에 사회 서 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구(NGO)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왔습니다.

조시마르 페레이라 프레이타스(브라질 캄푸스 두스 고이타카제스 출신) 는 토목공학자입니다. 브라질 주요 전력 사업체에서 근무했으며, 이 시

기 오푸스데이 부속 회원으로서 자신 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. 후안 마르 틴 기스몬디(40세, 아르헨티나)는 부 에노스아이레스 주 아드로게 출신이 다. 멘도사와 코르도바에서 대학 기 숙사 교육 책임자 및 코디네이터로 근무했으며,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계사로도 일했다. 호세 마리아 알 바레스 데 톨레도(마드리드 출신)는 저널리즘과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. 신학 공부를 병행하며 오푸스 데이 웹사이트 콘텐츠 편집자로도 활동했 습니다. "글쓰기에 열정을 품고 있으 며, 특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좋 아합니다. '스트레인저스 씽즈' 같은 시리즈를 즐기는 젊은이들에게 복음 의 빛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고 민합니다"라고 그는 말합니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11weol-22il-opuseudei-sinja-18myeongi-

makao-gyogunim-ibunsangjugyorobuteo-buje-seopumeul-badgedoebnida/ (2025-12-11)